

# 주택연금

Vol. 3+ Winter. 2012

내 집에서 그대로 당당하게 즐기는 노후



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주택연금의 특징

-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을 보장합니다.
- 2 **공적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3 **낮은 대출 금리**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3개월 CD금리+1.1%)
- 4 **저렴한 초기비용**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5 **세제지원**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되며, 대출이자비용은 연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본 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간하는 주택연금에 관한 무료 소식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공기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남대문로5가 6-1)  
TEL 1688-8114

### 2012. Winter

발행일 \_ 2012. 12. 20  
발행처 \_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인 \_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편집위원장 \_ 박승창 (주택연금부장)  
제작 대행 \_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  
편집장 \_ 전유선 simamoto69@joongang.co.kr  
취재기자 \_ 윤정아 redsky@joongang.co.kr  
김상호 sanghosa@joongang.co.kr  
여경미 kyeongmi@joongang.co.kr  
장혜옥 lucida73@naver.com  
최경원 happyworry@nate.com  
리터치 출력 \_ Tricom  
인쇄 \_ (주)삼화인쇄



CEO Message	02.
Special Interview	04.
천창령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All about	06.
2012 사진으로 보는 주택연금 주요 뉴스	
Happy People	10.
주택금융공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봉사활동	
Special Report	12.
2012년 주택연금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Zoom In	14.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선	
Senior Study	16.
제 2의 인생 재능기부, 어렵지 않아요	
Health +	18.
겨울철 건강 예방법	
Happy Life	20.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겨울 온천 여행	
Culture Story	24.
연말연시, 공연으로 따뜻한 감성 채우세요	
지사소개	26.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부 한마음 한뜻으로 연금 실적 1위를 만든 드림팀	
고객수기	28.
집, 그건 끝없는 사랑	
퀴즈	32.

## 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서종대입니다.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한파에 옷깃을 쪽쪽 여미게 되는 계절,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  
십니까? 올해 초 봄호를 창간호로 발간된 공사 소식지「주택연금」이 어느덧 겨울호  
를 통해 세 번째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출시 5주년을 맞이한 2012년은 다양한 성과를 거뒀던 한해였습니다. 지난  
8월 주택연금 1만 번째 고객 가입 소식은 주택연금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어르  
신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11월 말 기준 신규가입진수 4,643건, 보증공급액 6조 2,927  
억 원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으며, 그 결과 지난 12월 11일 주택연금이 머니투  
데이방송과 금융소비자학회에서 주최·주관하는 '100세 시대 금융대상'을 수상하  
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수술비, 자녀교육비와 같은 목돈이 필요할 때의 일반생활자금 일시인출한도를  
30%에서 50% 확대, 가입 후 10년간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전후후박형 신상  
품 출시, 천재지변 및 화재로 인한 사유로 해지시 초기보증료 환급 제도 도입, 주택  
연금 주택가격 평가방법 확대 등 고객친화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  
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괄목할 만한 실적을 발판삼아 지난 11월 저희 공사는 '서민과 함께하는 최고  
의 주택금융 전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 최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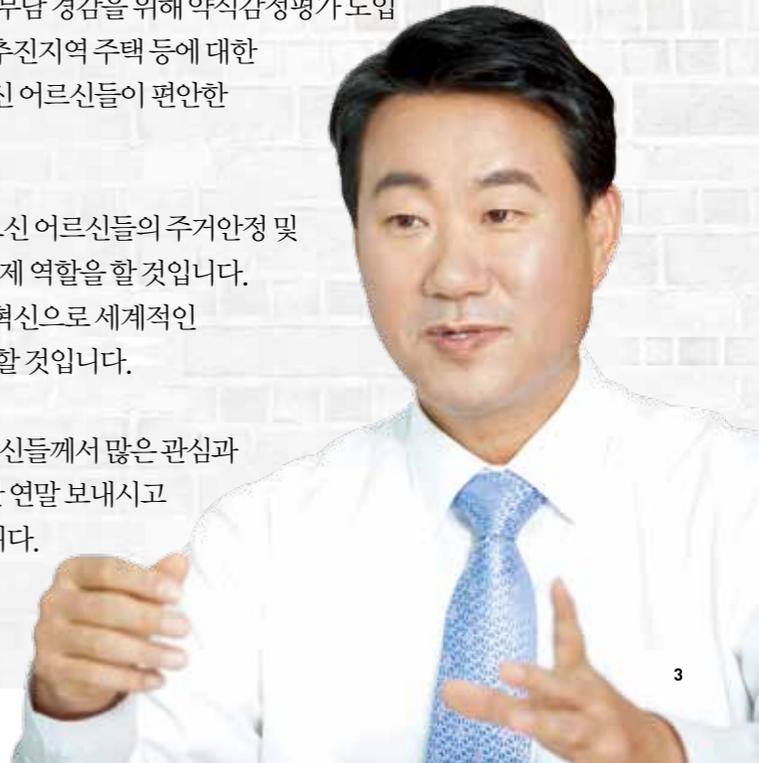
'혁신과 도전', '정도와 청렴'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서민지원 강화'와 '주택금  
융 선진화' 그리고 '경영시스템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2013년에도 이어나갈 것  
입니다.

우선 신상품 출시로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객 부담 경감을 위해 약식감정평가 도입  
및 법무사 수수료를 인하하고, 택지개발사업 추진지역 주택 등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검토해 집 한 채만 가지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오신 어르신들의 주거안정 및  
노후생활안정과 주택금융 선진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의 임직원 모두는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세계적인  
주택금융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앞날에 어르신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서종대**





# 주택연금, 세계에서 인정받는 일류 금융상품으로 성장시킬 것

## 천창령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서민금융본부장/경제학 박사

천창령 이사는 국내·국제금융, 소매 및 도매금융, 미소금융 등을 두루 경험한 정통 '은행맨' 출신이다.

외환카드 출범 당시 진두지휘를 맡기도 했던 그는 민간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몸담았다.

지난해 주택금융공사로 자리를 옮긴 천 이사는 많은 담당 업무 중에서도 '주택연금' 업무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정리 장혜옥 기자



### 주택연금 담당이사로서 2012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금년은 주택연금에서 기념비적인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을 출시한지 5년 만에 연금고객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금융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보다도 초기 가입 속도가 8배나 빠른 것입니다. 집값은 내리고, 이자율은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준비로 주택연금이 좋다는 인식이 그만큼 많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가입자 1만 명 돌파는 단순히 수치적인 의미보다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인식전환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특기할만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외부 강연이라든지 방송 출연, 신문 기고 등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에 주력한 한 해였습니다.

### 은퇴설계 콘서트 등 외부 강연을 활발하게 하셨는데요, 강연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100세를 넘어서 120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강의를 듣는 청중들은 깜짝 놀랍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데 반해 사회적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되는 시대를 지금껏 맞이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종종 노후준비 없이 120세 시대를 사는 것을 지도 없이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사람들이 크레바스(빙하가 갈라져 깨진 틈)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일과 카라비너입니다.

120세 시대를 맞이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인생의 카라비너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전례 없이 빠른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해 어르신들의 사회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든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노후는 누구나 맞이하는 것이지만 우아하고 명예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지의 여부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늘어난 기대수명만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사님은 은퇴 이후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전반부에 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후반부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좀 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남북통일 기금 쉼을 발행하는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젊은이들이 통일 비용 때문에 남북통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서부터 생각한 것입니다. 온국민이 참여하는 통일 쉼 재단을 운영하다가 80세 정도에 현역에서 은퇴를 하면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만들어 전국의 20개 중소도시에서 2년 정도씩 살면서, 밴드가 없는 시골 교회를 순회하고 음악봉사도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과 교류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트위터를 보니 아이디가 천바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스스로 호칭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해병대 장교로

40개월 정도 복무 했는데,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석사장교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대학원 동기생들이 6개월만에 소위로 제대하는 것을 보니까 시간상으로 많이 손해를 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보 같았죠. 당시 저랑 같이 군 복무했던 친구들과 바보클럽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기간이 제 인생에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라면 바보가 되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1000babo를 아이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12년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곧 새해가 밝을 텐데 신년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내년도 업무계획상 연금 가입 목표를 6,500건으로 잡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10,000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연금과 관련된 인프라와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5년생부터 63년생을 베이비붐 세대로 보는 데 55년생이 60세가 되는 2015년도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도 좀 더 다양화해야 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 인식을 확실하게 바꾸기 위해서 올해보다 더 많은 강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고객과 직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연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입속도가 빠른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 이내에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어디를 나가서도 주택연금에 대해 자랑스럽게 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쌓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고객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인생의 카라비너를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카라비너의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 WHAT all about

## Adieu 2012 사진으로 보는 주택연금 주요 뉴스

1년을 바쁘게 보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었던 현장마케팅이 기억에 남는다. 모든 행사를 나열할 수는 없지만 주택연금을 알리는 계기가 된 굵직굵직한 올해의 대표 행사들을 꼽아본다.

정리 · 사진 주택연금편집부



5월 2일

### 노인복지관협회 춘·추계 전국대회 후원

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노인복지관협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춘·추계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노인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가이를 후원해 왔다. 올해 춘추계 전국대회에서는 주택연금 초청특강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노후설계와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5월 8일

### 어버이날 주택연금 고객 사은행사

매년 어버이날이면 주택연금 고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은행사를 펼쳐온 공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16개 지사 구성원들이 100여 명의 어르신 댁을 방문해 사은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은 물론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도 선사했다. 또한 은평구 연신내에 위치한 어르신 전용극장에서 주택연금 상담 및 홍보 빵 지원 등 어버이날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6월 14일

### 2012 부산국제실버엑스포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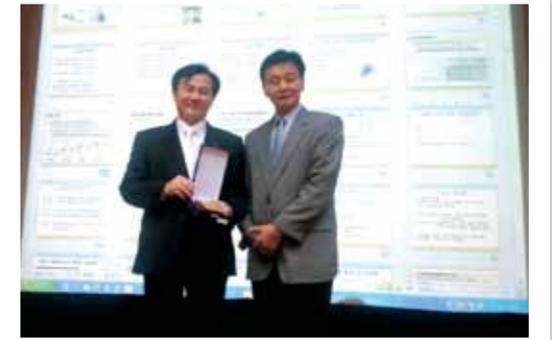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6월 14일부터 3일간 개최된 '2012 부산국제실버엑스포'에 참가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부산국제실버엑스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BEXCO가 주관하는 고령친화제품 전문전시회로,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공사는 취미·여가·금융 정보 등이 전시되는 '노후준비관'에 전용 부스를 설치하고 주택연금 상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7월 18일

### 베이비부머 은퇴설계콘서트

지난 7월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제2회 베이비부머 은퇴설계콘서트가 전국 7개 도시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이비부머의 큰 호응을 얻은 이 콘서트는 국민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공공 및 민간의 노후설계 영역별 6개 전문기관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해 함께 의미 있는 지원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아 개최했다. 이 콘서트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후 설계 강연과 상담, 추억의 7080 음악공연 등 알찬 내용으로 마련되었다.



8월 6일

### 주택연금 가입 고객 1만 명 돌파

지난 8월 6일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00명을 넘어섰다. 공사는 2007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5년 만에 탄생한 1만 번째 고객 가입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전국 16개 지사별로 고객 초청 사은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독거 어르신 쌀 지원 등의 다양한 사은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기념 수기를 공모해 응모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고, 우수 공모작에 대하여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Adieu 2012



8月 30日

2012 시니어 & 장애인 엑스포 참가

지난 8월 30일부터 3일간 개최된 '2012 시니어 & 장애인 엑스포' (행정안전부 등 주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종합 복지 콘텐츠 전시회로 크게 전시와 학술 연구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융, 주거, 건강 관련 고령 친화 품목 전시장에 전용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주택연금 상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9月 25日

서울 시니어 일자리 엑스포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2012 서울 시니어 일자리 엑스포'는 서울시가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개최한 것으로 일자리 정보교류관, 일자리 서비스관, 일자리 채용관 등 테마별 3개 관을 운영, 취업 준비부터 채용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용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발걸음하신 어르신들께 주택연금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9月 10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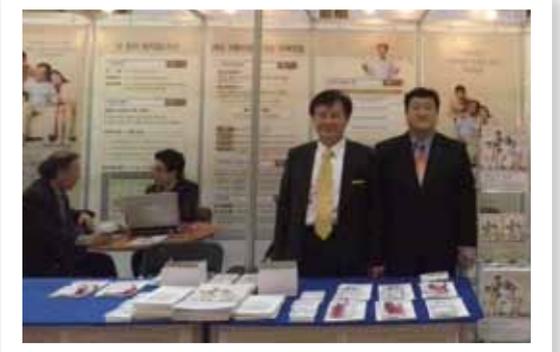
농어촌공사와 연금분야 업무협약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9월 10일 고령층 노후생활안정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고령층에 대한 연계 마케팅, 교육 및 홍보활동 상호 지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서종대 사장은 "양 기관은 앞으로 연금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등 국민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月 1日

조선비즈 4060 인생설계박람회

조선미디어 그룹의 경제매체 조선비즈 등이 주최한 '4060인생설계 박람회 2012'가 11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4060인생설계 박람회 2012'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령인구 설계를 따른 노후대책 등을 고민하는 행사였다. 이 행사는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전시, 세미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금융·재테크관에서는 주택연금과 노후설계를 위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9月 20日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지난 9월 20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개최된 '2012 서대문구 사회 복지 박람회'는 주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도록 해 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서대문구가 준비한 행사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용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상담 및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12月 11日

100세 시대 금융대상 수상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월 11일 '100세 시대 금융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신설된 이 상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하고 유익한 노후 대비 금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머니투데이방송(MTN)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했다. 각 분야를 망라한 24개 출품작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6개 금융상품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주택금융공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봉사활동 사랑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 이웃과 함께 나눠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실 월동준비는 필요한 게 너무 많지만, 대한민국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바로 '김장'이 아닐까. 지난 11월 23일 부쩍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이웃과 함께할 사랑의 김장 김치를 나누는 현장을 찾았다.

글장혜옥 기자 사진 전민규기자

“한국 사람에게서 따뜻한 밥에 김치가 최고잖아요. 김치를 담그는 동안 드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 만들 생각입니다. 비록 큰 도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만든 김치를 드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싸늘한 기온 탓에 코끝과 양볼은 발갛게 물들었지만 밝은 얼굴로 참여 소감을 이야기 하는 주택금융공사 임직원 30여 명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매서운 바람에 수은주가 푹 떨어진 초겨울 아침,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30여 명이 마천동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 모였다. 결식아동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그기 위해서다. 이날의 김장 목표는 총 6,000kg. 복지관 앞마당에는 수북하게 쌓인 절임배추가 보금자리봉사단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봉사단원들은 위생모와 장갑, 앞치마를 착용하고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했는데, 이날 김장 봉사 활동은 김장조, 이동조 그리고 포장조 이렇게 세 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김치를 모두 나르고 일하기 좋게 진열하는 일을 담당하던 이동조는 설새 없이 배추를 다듬고, 나르느라 싸늘한 날씨 속에서도 비지땀을 흘렸다. 이동조에서 배추의 물을 짜서 김장조로 넘기면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그는 과정이 시작된다. 한 포기를 내어 정성스럽게 김치의 속을 넣으니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김치가 만들어진다. 김치속 넣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장시간 한곳에서 가만히 김치속을 넣으려면 허리 어깨가 뭉치기 일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목표수량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봉사단원들은 힘들어도 꼭 참고 바쁘게 움직였다.

김장조에서 묵묵히 김치를 담고 있던 리스크 관리부 김대근 차장은 “난생 처음 해보는 김장이라 처음엔 서툴렀지만 곧 익숙해졌다”면서 “김치가 잘 익어서 받으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며 활짝 웃었다.

김장조에서 완성된 김치는 박스에 깔끔하게 담겨 포장되는데, 한 상자에 10kg 정도 되는 김치상자를 반복해서 들었다 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도 만만치 않다. 포장조에서 김치가 담긴 박스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맡은 유동화자산부 김



아람 주임은 “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오늘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분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 고객만족부 사회공헌 담당 오진아 대리는 “오늘 봉사활동에 참가한 보금자리봉사단 30여 명은 본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 모인 것”이라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직원 여러분께 추운 날씨에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담은 김장김치 6,000kg은 공사 직원들이 모은 성금 2,000만원과 함께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서 서종대 사장은 “예부터 우리 조상이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을 대비하여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김장을 하는 것이었다”며 “공사 직원들이 사랑을 담아 직접 담은 김치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업 이수현 팀장도 “최근 김치 재료값도 많이 올라서 김장을 담그는 데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가정이 많은데, 오늘 담은 김장김치로 독거어르신이나 한부모·조손가정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에서 매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은 주택금융공사와 어린이재단이 지난 2009년부터 함께 해오고 있는 것으로, 이날 주택금융공사 봉사모임인 보금자리봉사단이 담근 김치와 성금은 서울 마천동 마천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센터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 400여 가구에 전달되었다. 🍲

## 2012년 주택연금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2012년 한해 동안 주택연금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반용도의 일시인출한도가 확대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의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후후박형이 상품 출시되고 주택가격 평가방법도 확대되었다. 올 한 해 동안 바뀐 주택연금 제도를 정리해보았다.

정리 주택연금부

### 일반용도의 일시인출한도 30%에서 50%로 확대

지난 7월 2일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용도의 일시인출한도가 총 연금한도의 30%(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입차보증금을 반환할 때만 총 연금한도의 50%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써 주택연금 가입자가 뜻하지 않게 목돈의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확대된 주택연금 일시인출 제도를 통해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시인출한도 확대는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해당되며, 일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후 반환해도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 가입 초기에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전후후박형 상품 출시

7월 31일에는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전후후박형 상품이 출시되었다. 전후후박형 상품은 주택연

금 신청자가 가입 초기 10년간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받게 되는 상품이다. 이는 은퇴 직후 일정기간 소비활동이 활발한 어르신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종신까지 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연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다.

###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택 멸실되어 해지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개정

10월 29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담보주택이 멸실되어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중 주택가격에서 보증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 등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가입자들은 초기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초기 보증료란 주택연금 가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미래 손실에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성격의 가입비이다.

###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 평가방법 확대

기존에는 시세가 없는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택가격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 평가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입자가 내야했던 감정평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개별 감정평가가격 우선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과 동일하다.

## 2013년도 제도 개선 추진 방향

2012년도 주택금융공사는 다양한 노후자금 수요 충족 및 주택연금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3년에도 수요자 중심의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친화적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 ▲ 가입자격 완화 및 확대

- 부부 기준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기준 60세 이상으로 가입자격 완화

#### ▲ 주택연금 이용편의 증진

- 신상품 출시 검토 및 법무사 수수료 인하를 통한 고객 부담 경감
- 국토부의 주택공시가격 및 한국감정원 약식감정평가 허용

#### \* 2013년도 월지급금 변경 안내

2013년도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될 예정이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1.1%~3.9%(평균 2.8%) 감소한다. 단, 기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다.

### 그래프로 보는

### 지급유형별

### 월지급금

집값 3억원, 70세 가입시



## 주택연금, 바로 알고 가입하자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선

주택연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 서당동에 살고 있는 심모(78세) 씨는 당초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방송보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난 10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심 씨와 같이 주택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선(選)을 정리해 보았다.

정리 주택연금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담보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담보주택에 대한 한국감정원 또는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가 있으면 감정평가가 필요 없다. 시세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받는다.

**해마다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한다?**

아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 유형 중 '정률증가형'을 선택하면 매년 월지급금이 3%씩 상승하므로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그대로다?**

맞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그러나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매년 3.3%씩 오른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것이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가격 등락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된다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저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가입비용이 비싸고 비용환불이 불가능하다?**

아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초기 보증료와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가 있다. 이 중 초기보증료는 미래의 손실에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 성격의 가입비로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가입 후 1회 월지급금만 받고 철회할 경우에는 초기보증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화재로 가입주택이 멸실되어 해지할 경우에도 초기보증료는 일부 환급이 된다. 또 근저당권 설정비 중 등록세 등은 면제되며, 법무사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연금한도가 3억원으로 묶여 있어 5억~6억원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손해다?**

아니다. 주택연금 연금한도\*는 출시 당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2009년 3월)되었으며, 주택연금 지급액이 주택 처분액보다 적어 남은 금액이 있으면 유족이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반면 사망시까지 주택연금 지급액이 주택처분액을 초과하여도 유족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100세까지 받을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내 집을 통해 연금을 받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15% 내에서 의료비, 자녀결혼 비용 등의 사용제한이 많다?**

아니다. 주택연금은 연금한도의 50% 내에서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도박 등 사행성 자금, 주택구매 등 용도로의 이용은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 이후에는 이사하지 못한다?**

아니다. 이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새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주택연금 대출금 상환, 월지급금 변동 및 초기보증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은 거주요건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된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 주택의 담보대출을 모두 갚고 가입해야 한다?**

아니다.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을 활용하여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무조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용 중인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되는 경우 소유권 상실로 지급정지사유에 해당되나, 재개발·재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구입 주택으로 담보주택 변경을 하면 계속 수령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소유주는 각종 세금을 내야 하고,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주택연금 계약이 해지된다?**

일부만 맞다. 주택소유자는 누구나 주택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세 25%(주택공시가격의 5억원 해당분에 한함) 감면, 대출이자비용 연금소득 공제 등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

## 제2의 인생 재능기부, 어렵지 않아요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재능기부'가 새로운 기부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시니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재능기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글:윤정아 기자 사진:Jphoto

“재능기부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간이죠.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수지침 재능기부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성(61) 씨는 재능기부를 통해 삶이 변화했다고 말한다. 얼마 전까지 공무원으로 일한 그는 나름대로 일에 대한 보람도 느꼈고, 자녀들을 키우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 느끼며 살아왔다. 그러나 은퇴 후 무료한 생활에 지칠 무렵 만난 '재능기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고 말한다.

이유미(65) 씨도 젊은 시절 도자기를 배웠던 실력을 어린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손녀 양육을 위해 손을 놓았던 도자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 꼬물거리는 손으로 도자기 빚기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입가에 절

로 미소가 번진다. 완성된 도자기를 보며 환호하는 아이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다. 갱년



기 우울증을 재능기부로 극복했다는 이 씨는 재능기부가 시니어들에게 무척 좋은 취미이자, 소일거리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최근 들어 재능기부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를 한 시니어들에게 재능기부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 흔히 기부라고 하면 물질적인 기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재능기부'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기부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기부 방식이다. 특히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시니어들에게 꼭 어울리는 기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능기부는 봉사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봉사의 대상과 교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재능기부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다.

### 재능 나눔, 행복한 첫걸음

재능기부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랑할 만한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해도 자신에게 감춰둔 소질을 살리면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 요리를 마련해 불우이웃과 음식을 나눠먹을 수도 있고, 책을 읽어주거나 뜨개질 같은 손재주를 이용하는 것도 모두 재능기부의 한 방식이다. 예전에는 지식, 기술 등 특별한 재능을 이용해 기부하는 것을 말했는데, 최근에는 운전과 요리, 빨래, 아이 돌보기 등 가사 봉사에서부터 학업 멘토링이나 어르신 말벗에 이르기까지 분야가 다양해져 나눔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일부 재능기부 단체들은 재능을 육성해 기부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재능기부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재능도 개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보람도 찾을 수 있다. 재능을 나누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나눔이기 때문에 더욱 뜻 깊다.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이 더 큰 감동을 전해준다. 일회성의 금전 기부와는 달리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봉사의 모델로 자리매김한 재능기부, 행복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



###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면?

#### 스마일재능뱅크

스마일 재능뱅크는 재능이 있는 개인, 기업, 단체가 기부하고자 하는 재능을 등록하고, 농어촌에서는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재능기부받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재능을 기부하려는 자와 기부 받으려는 자를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회원 가입 후 재능기부를 신청하면 재능기부 요청 마을에서 정보를 확인해 요청하는 방식이다.

홈페이지 [www.smilebank.kr](http://www.smilebank.kr)

#### BBB KOREA

BBB KOREA는 2002년 월드캥 당시 방한 외국인 의 언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시민지원봉사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어의 장벽에 부딪힌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통역을 해준다.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권할 만한 재능기부다.

홈페이지 [www.bbbkorea.org](http://www.bbbkorea.org)

#### 시·군에서 운영하는 재능기부 단체

최근 많은 시·군 재능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재능기부팀은 수지침, 제과, 공예품 만들기 등 강좌를 개설해 그 강좌를 수료한 사람들과 함께 재능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재능기부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www.woman.gg.go.kr](http://www.woman.gg.go.kr)



## 겨울철 건강 예방법 “기온 변화에 주의하세요”

겨울이 되면 시니어 '건강'에 비상등이 켜진다. 어느 때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시니어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겨울철 건강 예방법을 소개한다.

글 여경미 기자  
참고자료 건강박사 유태종의 9988 건강습관(리스크)



춥고 건조한 겨울,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급격한 기온변화가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부에서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수분 배출이 안 되고,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된다. 이럴 때 영양까지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춥다고 해서 집안에 웅크리고 있기 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활동과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겨울철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의 온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수분은 호흡기의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 기관지나 호흡기 질환을 막아준다.

옷 또한 겨울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혈액순환엔 도움이 되지만 너무 두껍게 입거나 꼭 조이면 도리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중풍, 심근 경색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몸이 따뜻해야 병이 없다

사람 몸의 1℃ 차이는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흔히 열이 '떨떨 끓는다'고 말할 때 정상 체온인 36~37℃에서 1~2℃ 올라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몸이 느끼는 1~2℃의 변화는 크다. 사람의 몸에 침투하는 병원이나 바이러스는 체온 1~2℃ 차이에 쉽게 번식하거나 소멸한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온도를 높임으로써 바이러스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감기 외에도 온도의 변화로 걸릴 수 있는 질환은 여러 가지다. 뇌졸중은 차가운 공기나 물체에 장시간 접촉했을 때 체온이 내려가 생기는 질환이다. 체온이 낮으면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혈중 콜레스테롤이 잘 뭉쳐 노폐물의 연소·분해가 더뎈다. 정상체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운동이 필수”라 말한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에서 열을 만들어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혈액순환도 느려진다.

### 너무 건조해도 질병이 생길 수 있어

많은 의사들은 겨울철 건강에 중요한 요소로 '습도'를 꼽는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겨울 내내

건조한 공기를 들며 마신다면 기관지 관련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여름은 비가 많이 내려 평소보다 물에 접하는 시간이 많지만 겨울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습도의 비율이 낮아져 인위적으로 습도를 보충해줘야 한다.

겨울철 실내 습도는 40% 이상이 적당하다. 습도 유지를 위해선 환기가 중요하므로 춥다고 문을 닫고 있지 말고 하루에 두세 번 정도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집안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가습기를 틀다 보면 벽에 습기가 차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오랜 시간동안 습기가 방안에 차 있으면 몸이 축축해져 오히려 감기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석유난로나 전기 히터 등 난방 기구를 이용할 때는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환기를 해주어야 한다. 🍂

### 겨울철, 옷으로 건강 예방하기

#### 중풍 예방을 돕는 모자

중풍은 유독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 모자는 중풍 예방에 효과가 있어 피곤하고 뒷뚱이 빠진 사람이라면 모자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

#### 옷으로 질환 예방

공기가 차가워지고 건조하면 건조성 피부염, 주부습진, 아토피성 피부병 등 피부질환이 생기기 쉽다. 이때 까칠까칠한 옷보다는 면 소재의 옷이 예방 효과가 크다. 또한 땀에 젖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닐 경우 체온이 떨어져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옷이 너무 두꺼우면 자칫 넘어져 뼈를 부러뜨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바지는 폭신한 것을 입는 것이 좋다.



#### 발 보호에 좋은 신발과 양말

신발이 헐거우면 넘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앵글 부츠와 같이 발목을 덮는 신발을 신어보자. 신발과 양말은 두 겹레를 준비해 습기가 차지 않도록 번갈아 신는다. 당뇨병 환자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건강한 넥타이와 허리띠 착용법

넥타이를 너무 꽉 매면 경동맥이 압박돼 중풍의 위험이 높아진다. 넥타이는 손가락 한 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매고 될 수 있는 한 와이셔츠 맨 위 단추는 풀어놓는다. 허리띠를 너무 조일 경우 배의 압력이 높아져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며 천식 폐질환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겨울 온천 여행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온천여행이 제격이다. 국내 수십여 개의 온천 중에서 가족 여행지로 적합한 세 곳을 소개한다. 종합 레포츠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문경의 온천과 해안 드라이브 코스를 품고 있는 울진의 온천, 스키와 함께 하는 무주의 온천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글 김상호 기자 사진 Jphoto



## 한곳에서 다즐거져! 문경시 온천

경상북도 문경시하면 충청도와 경상도의 관문인 문경새재가 떠오른다. 구불구불한 고개를 따라 주흘관, 조곡관, 조령관 등 3개의 관문이 남아있으며, 주흘관에서 조령관까지 5km에 이르는 등산로는 최근 정비를 거쳐 편안한 트래킹 코스로 등산객들을 반기고 있다. 트래킹 코스를 따라 걷다보면 방송 3사의 오픈세트장을 만날 수 있다. 태조왕건, 무사 백동수, 해를 품은 달, 성균관스캔들 등의 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됐다. 광화문과 전통 장터, 저잣거리 등 조선 시대를 그대로 재현해 낸 세트장에서는 매일 흥미로운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또 문경새재 인근에는 실제 갯도를 보유하고 있는 석탄박물관과 청자 가마터, 청자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도자기전시관이 있다.

문경 온천은 경상북도가 지정한 온천지구 내에 모여 있다. 문경의 온천은 피부에 좋은 칼슘 중탄산탕과 관절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알칼리탕 두 가지 온천수가 솟아 나온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문경종합 온천은 깨끗한 신식 시설과 가족탕을 보유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숙박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 수류의 압력으로 전신 마사지가 되는 플로팅과 제트 노즐로 발바닥을 자극하는 드림버스, 서서 즐기는 온천 하이드로젯 등 다양한 온천 시설을 보유한 기능성온천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가격 또한 비교적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문경 온천에서 뜨끈한 온천을 즐긴 후 근처 문경약돌돼지타운과 문경한우타운에 들러 맛있는 식사를 즐긴다면 금상첨화.



가는 길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하리(문경공용버스정류장 인근)  
 문 의 : 문경종합온천 054-571-2002  
 문경기능성온천 054-572-3333

영덕 블루로드를 따라 바다로!

## 울진 온천

울진에 위치한 백암온천과 덕구온천은 온천 자체로도 유명하지만 주변 천혜 자연의 풍경 덕에 더 유명한 곳이다. 최고의 드라이브코스인 7번 국도를 따라 강원에서 경북까지 내달리다 보면 꽃게 집게 모양의 등대가 바다를 비추는 울진항에 다다른다. 울진항에서 최고의 산악 해돋이 명소인 응봉산으로 향하면 만나게 되는 곳이 덕구온천이며, 대개의 산지 영덕으로 향하면 백암온천을 만나게 된다. 응봉산 계곡 끝에 자리 잡은 덕구온천은 특이한 전설을 품고 있다. 고려시대 활의 명수인 전모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괴롭히던 멧돼지를 활로 명중시켰는데, 멧돼지는 절뚝이며 산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숨을 끊어놓으러 쫓아가 보니 멧돼지가 계곡에서 몸을 씻고 있는 꼴을 같이 달아나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여긴 전씨가 가만 살펴보니 그 계곡은 신비로운 온천이었다. 그 덕에 유명해진 덕구온천은 한동안 노천온천탕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관절염에 특효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돌들이 닳을 정도였다. 산 속 깊은

계곡의 덕구온천은 온천개발을 통해 온천장까지 4km 송수관을 연결했고 덕구온천 휴양 단지로 조성되었다. 덕구온천은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온천수로 물의 온도는 그리 높지 않고 수량도 풍부하지 않다. 현재는 종합 워터파크 덕구온천 스파월드와 등산로에 가깝고 숙박시설이 뛰어난 백산덕구온천, 두 곳이 운영된다. 울진의 또 하나의 자랑은 울진과 영덕 중간에 위치한 백암온천이다. 2007년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가 열린 백암온천은 경북의 처마로 불리는 백암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백암온천은 비교적 높은 온도인 섭씨 46도의 온천수이며 라듐이 많이 함유된 국내 유일의 방사능 알칼리성 온천이다. 이는 피부질환에 특효라고 전해지면서, 겨울이면 심해지는 아토피, 건선 환자들도 많이 찾는다. 피로를 푼 뒤에는 울진의 특미를 맛볼 차례. 붉은 대게로 만든 대게 칼국수와 산삼만삼이나 귀하다는 울진 산삼이회, 임금님께 진상하던 고포미역 정식으로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있다.



가는 길 : 덕구온천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구리(응봉산 진입로)  
 백암온천 /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백암산 진입로)  
 문 의 : 덕구온천 054-782-0677  
 백암온천 054-789-5480

레저 즐기는 가족과 온천으로 직행!

## 무주 온천

영남권에 위치한 무주는 뛰어난 숙박 시설과 특별한 온천 시설로 가족 여행객들을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몸이 굳을 정도로 시린 눈발을 가르며 마음껏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긴 다음 뜨거운 온천탕에 몸을 담그면 하루의 피로가 가신다. 무주의 온천은 특이하다. 땅에서 솟아난 온천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무주구천동 계곡의 맑은 물은 매년 반딧불 축제를 할 정도로 1급수의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물이 미온수여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온천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섭씨25도 이상 유지되어야 온천으로 인증 받을 수 있어 이곳에서는 일본의 대표 화산 노천탕인 노보리베츠의 온천입욕제를 섞어 뜨겁게 데운 후 탕에 공급해 온천을 운용하고 있다. 노천탕 형식을 그대로 조성한 무주의 온천은 덕유산 내 솔마를 세솔동에 자리 잡고 있다. 바위로 둘러싸인 온천탕과 광천수탕, 실외온천물장은 물론 사우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온천탕 옆에 서 있

는 전나무와 소나무는 북유럽 눈 쌓인 산 속에 위치한 노천 온천의 풍경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아름답다. 나무 위로 수북이 쌓인 눈이 무게를 못 견뎌 탕 속으로 툭툭 떨어지는 모습을 노천탕에서 바라보고 있노라면, 인공 온천탕이라는 생각은 이미 잊어버릴 것이다. 특히 스키장의 조명이 꺼지고 주변이 더욱 어두워지면 운치가 더해진다. 어둑한 온천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검은 하늘을 점점이 수놓은 반짝거리는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에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깨끗한 자연에서 재배된 유기농 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기농 천마와 표고버섯은 따로 가공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미 무주군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다. 덕유산 주변의 1급수 계곡에서는 산천어와 무지개 송어가 잡혀 회와 요리로 입맛을 돋우며, 적상산 중턱에 위치한 머루 와인 동굴은 무주 머루로 만든 와인을 시음도 하고 구입할 수도 있다. 🍷



가는 길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곡리(무주 덕유산리조트)  
 문 의 : 063-322-9000

내게 어울리는 온천은?



**겨울 산행을 마치고 단양 소백산풍기온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산인 소백산. 단양 천통계곡이나 죽령 휴게소를 산행의 기점으로 삼는다. 정상인 비로봉을 지나 희방사로 내려오면 5분 거리에 풍기온천이 위치. 지하800m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칼리성 유황 온천으로 수질이 아주 매끄럽기로 유명하다.  
 전화: 054-639-6911  
 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불한증막과 썩빚을 갖춘 포천 명덕탄산천**  
 지하 900m에서 용출되는 탄산수를 사용한 명덕탄산천. 탄산을 함유한 광천수에 몸을 담그면 모세혈관이 확장돼 혈액 순환이 좋아져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에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노천탕 옆에 위치한 불한증막은 소나무로 군불을 때는 전통 방식으로 주부들에게 인기다.  
 전화: 031-534-5873~5  
 위치: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명덕리

**온천 마니아가 찾는 전통 온천 이천 설봉온천**  
 유서 깊은 이천온천을 이끌고 있는 설봉온천관광호텔과 미란다호텔. 수도권에서 멀지 않아 사시사철 많은 사람이 찾는다. 시설은 낡았지만 수질이 매끄럽고 뛰어난 중장년층의 단골이 많은 편이다. 맥반석 찜질방을 갖추고 있으며 단체 여행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전화: 031-635-5701  
 위치: 경기 이천시 안흥동

# 연말연시, 공연으로 따뜻한 감성 채우세요

연말 연시를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면 가족, 부부와 함께 오붓한 데이트를 즐겨보자. 요즘은 '공연=젊은이'의 방식이 깨지면서 뮤지컬, 연극, 콘서트를 즐겨 찾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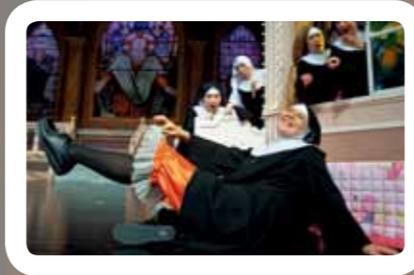
글 최경원 기자

## 수녀들의 포복절도할 개그와 풍자 뮤지컬 <넌센스>

뮤지컬 <넌센스>는 국내 공연 사상 최장기록을 달성한 국민 뮤지컬로 손꼽힌다. 1991년 6월 초 연 후 쪽 현재 진행형으로 '화끈한 수녀' '잘 노는 수녀'들의 포복절도할 개그와 풍자가 펼쳐진다. 이번 <넌센스>는 확 달라진 무대 디자인으로 대학로 예술마당 4관에서 공연된다. '대학로 판넌센스'는 어린 신인 배우들의 무대다. 젊은 여배우들은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진 '특급 재주꾼'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용은 뉴저지 호보켄에서 성헬렌 학교를 운영하는 수녀들이 식중독 증상으로 죽은 수녀들의 장례기금 마련을 위해 자선공연을 펼친다는 것. 엄하지 만 변덕스러운 원장수녀 메리 레지나, 터프한 수녀원 2인자 교육담당 허버트, 큰 십자가에 머리를 맞아 기억을 잃은 엠네지아, 언더스터디지만 솔로무대의 꿈을 꾸고 있는 로버트 앤, 귀여운 발레리나 예비수녀 메리 레오 등 개성 강한 다섯 수녀들의 공연이 좌충우돌 이어진다.

- 기간: 12월 14일~2013년 1월 27일
- 장소: 대학로 예술마당 4관
- 가격: 전석 4만원 / 연락처: 02-741-1234



## 황혼에 찾아든 사랑이야기 뮤지컬 <노래하는 늙은 부부 이야기>

누구나 한번쯤은 꿈꾼다. 청춘의 이름으로 달고 싶은 황혼의 사랑을. 10년간 명품연극으로 사랑받아온 '늙은 부부 이야기'가 그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뮤지컬로 업그레이드됐다. 뮤지컬 <노래하는 늙은 부부 이야기>는 멀티남과 멀티녀가 활약하는 4인극으로 변신해 한겨울 우리의 가슴에 찾아오는 따뜻한 명품 레퍼토리를 만들어냈다.

<노래하는 늙은 부부 이야기>는 외로운 노년 인생에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인 동만과 점순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이들 사랑은 마지막 사랑이건만 첫사랑보다 풋풋하고 애뜻하다. 우리네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이자 우리가 먼 미래에 달고 싶은 모습이기에 작품에서 보여지는 사랑은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뮤지컬로 재탄생한 작품은 7080 세대의 유행가부터 최신 가요까지 이야기 안에 녹여냈다. 배우들은 익숙한 가요를 율동과 함께 직접 열창하며 즐거움을 더한다. 동만 역은 최주봉과 정중준이, 점순 역은 사미자와 우상민이 번갈아 연기하며 뮤지컬을 이끈다.

- 기간: 11월 2일~12월 30일 / 장소: 세실극장
- 가격: 전석 4~5만원 / 연락처: 070-8245-2602



## 결혼 빼고 다 해본 그와 그녀의 이야기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은 한국 연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연극열전과 한국 예술의 중심인 예술의 전당이 공동 주최하고, 종년의 기품을 더한 대한민국 대표 명품 배우 배종옥과 조재현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중년 관객의 눈물을 자아내며 인기몰이를 했던 <민들레 바람 되어>에 이은 창작 초연작품으로 또 한 번의 흥행 신화 기록을 예상하게 한다. 내용은 친구이기도 연인이기도 한 저명한 역사학자 '그'와 은퇴한 국제분쟁 전문가 '그녀'의 이야기다. 비겁함, 행복, 역사 등 특별한 주제로부터 시작된 지적이고 세련된 대화는 어느새 그들의 비겁함, 그들의 행복, 그들의 역사로 바뀌며 마법 같은 대사의 향연이 이어진다. 사랑과 우정, 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애뜻한 사랑 이야기가 매력적인 로맨틱 연극으로 태어난다. 1991년 영화 <젊은 날의 초상> 이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배종옥과 조재현이 빛내는 환상의 앙상블 또한 연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 기간: 11월 23일~12월 30일 /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가격: 전석 3만5,000원~5만원 / 연락처: 02-766-6007

## 낭만의 크리스마스에 듣는 7080 포크송 콘서트 <7080 콘서트>

중장년층에게 낭만의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줄 특별한 콘서트가 부산에서 펼쳐진다. 부산문화회관은 기획공연으로 7080을 대표하는 가수들을 초청해 12월24일 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7080 콘서트>를 화려하게 연다. 콘서트에는 세시봉에서 막내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세환이 출연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길가에 앉아서' '좋은 걸 어떡해' 등 주옥같은 그의 히트곡을 들려준다. 70~80년대 대한민국에 포크송을 널리 대중화시킨 여전사이자 '알게 될 거야' '보고 싶은 내 친구'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남궁옥분도 합세해 '그대 그리고 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눈부시게 맑은 날' 등을 노래한다. 이외에도 심금을 울리는 미성의 목소리로 사랑을 받고 있는 미사리의 살아있는 전설 가수 추가열이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행복해요' 등 그의 히트곡을 선보이며, 영원한 오페라 오빠무대를 몰고 다니는 이치현은 그의 밴드인 벗님들과 함께 '집시 여인', '당신만이' 등을 열창한다.

- 기간: 12월 24일 /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가격: 전석 2~5만원 / 연락처: 051-607-6057





## 한마음 한뜻으로 연금 실적 1위를 만든 드림팀 영업부를 소개합니다

2012년도 연금실적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부의 첫 인상은 성실함이다. 직원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고객을 맞이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목표를 향해 바지런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본사 영업부를 찾아가 보았다.

글장혜옥 기자 사진오상민기자

제법 싸늘한 날씨에 잔뜩 어깨를 움츠리고 다니는 요즘, 본사 3층에 자리 잡은 영업부 직원들만은 예외다. 지난 11월 말을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 건수 목표를 153% 초과달성했기 때문이다. 이무홍 영업부장은 이런 성과 뒤에는 직원간의 화합과 단합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올해 본사 차원에서 TV홍보 활동이 활발했는데, 주택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TV 방송에 한 번 나오면 문의전화는 빗발쳤습니다. 이때 저희 영업부 전 직원이 업무분장과 상관없이 합심해서 주택연금 관련 문의전화를 받았지요. 만약 직원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가 아니라고 나 몰라라 방관했다면



이런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 1월, 영업부에 부임한 이무홍 부장이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화합이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 구성원이 화합과 단합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능률이 오르게 되고 이에 따라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사와 함께 위치한 영업부는 지사 중에서 인원이 많은 편이어서 직원들의 화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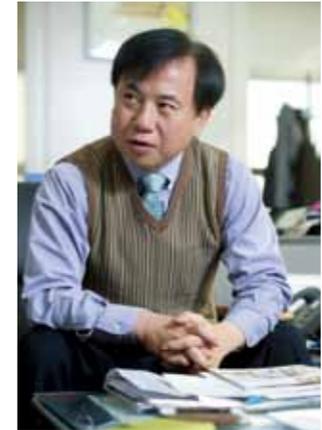
따라서 이무홍 부장이 가장 신경 쓰는 것도 직원들이 서로 교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원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 간다거나 영화를 보고 탁구나 야구 관람 같은 체육대회 행사를 연다.

영업부 근무 8개월째인 윤종국 과장은 “부서의 정식 회식 외에도 직원들끼리 종종 모임을 갖는 편”이라며 “업무 후에 직원들끼리 영화를 본다거나 간단하게 식사 후 맥주를 마시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하다 보면 잘 몰랐던 동료의 고민이나 고충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친해지고 신뢰를 쌓게 된다고 한다. 이런 직원 간의 신뢰와 화합은 자연스럽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안홍창 팀장은 직원들에게 고객에게 전화 응대 예절을 강조한다. 주택연금 업무 중 전화 상담 업무의 비중이 꽤 높은 데다 주 고객층이 60~70대 어르신들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청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말을 빠르게 하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신다”면서 항상 직원들에게 “또박또박 천



천히 크게 말하기”를 항상 강조한다. 더불어 안 팀장은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만 해결해 드리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며 “우리 모두가 영업부의 주인으로서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채워 드릴 수 있어야 진짜 고객 감동 서비스”라고 말한다.

이처럼 고객의 눈높이에서 맞춰 생각하고, 항상 더 불편한 점이 없는지 찾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영업부는 올해 4월에 영업점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상담 창구를 만들어 고객동선을 편리하게 바꾸고, 고객이 영업점 입구에 들어서면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혈압계, 잡지 등이 구비되어 있는 어르신 쉼터를 만들어 고객의 체감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남의 인정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영업부의 원동력은 진심에 대한 믿음이다. 고객과의 인연을 소중히 지키겠다는 진심, 나의 일과 일터를 사랑하겠다는 진심, 동료를 아끼고 존중하겠다는 진심이 있어 영업부의 하루하루는 언제나 기대 이상의 감동이 주는 행복으로 채워질 것이다.▲



고객수기 주택연금 가입 1만명 돌파 기념 체험수기 <우수상> 作

## 집, 그건 끝없는 사랑

오윤신  
가임자의 자녀(여)  
서울시도봉구 방학동

그날 참으로 많이 울었다.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닌 진정 나의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복받쳐 눈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이로 보이던 어머니의 뒷모습은 내가 그동안 외면해온 그분의 아픔과 오롯이 마주하는 것과 같아 괴로운 심정이었다.

그동안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드리지 못한 사랑, 나만을 생각한 이기심과 자책감. 나의 눈이 아닌 마음이 보고 있던 것이다. 그래서 더 아프고도 아팠는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남편과 자식에게 더 주시지 못해 안타까워하시고 미안해하시던 어머니의 사랑을 그저 당연한 듯 받기만 한 세월만큼 어머니의 가슴속 그들도 번져갔겠지 싶다.

올해 12월이면 어느덧 18년이란 시간을 홀로 지내신 어머니.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끝없는 회한을 가슴 속에 묻고 감내하신 시간. 그 시간동안 어머니는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셨다.

나의 어린 시절 대부분은 회색빛 아파트가 아닌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았었다. 어머니께서도 그때의 기억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로 기억하고 계신다. 누구나 그러하듯 작은 마당이지만 투박한 흙과 초록빛 생명, 그것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소박한 풍요로움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부모님께서 결혼 후에 작은 사업으로 열심히 사셨던 결과물이었다. 이후 우리가족은 직접 건축한 주택을 얻게 되었다.

그때의 시간은 나의 성장기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 소중한 기억들로 채워져 있다. 비

로소 벽돌건물이 집이라는 의미로 내게 다가왔다고나 할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각의 담장 안마당에서 볼 수 있었던 확연한 계절의 변화는 그저 그런 변화가 아닌 우리가 족만의 추억이 되었다. 그건 마당의 나무와 온갖 열매, 귀여운 강아지, 소중한 사람들, 집안의 무엇 하나 부모님의 정성스런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건축이 사람의 따스한 온기와 닿을 때 의미 있는 공간과 소중한 집이 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저의 사촌들을 아무조건 없이 마치 친어머니처럼 받아 주셨다. 이전에도 외국에 잠시 체류하시던 작은 아버지의 어린 형제들을 자식처럼 키워주신 일이 있다. 그 아이들이 공항에서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 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난 그때 적잖이 불만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때도 어머니는 받으시는 것보다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난 그들을 미워하기도 했었다. 부모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배려만큼 내게는 원망도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어느덧 시간은 더 흘러가고 나의 사춘기로 부모님께 양탈을 잔뜩 부릴 즈음 집안의 사정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에 좋지 않은 기류가 감지된 것이다.

불운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하지 않던가? 하나뿐인 이모의 사망과 부모님 사업의 위기. 그리고 당시 부모님이 수양딸처럼 여겨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돕던 언니의 배신 어린 가출.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위기처럼 다가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집을 정리해야...”

당시 부모님의 대화에서 힘겹게 읊조리시던 그 말씀에 난 눈물이 났다. 오래된 친구와 다시는 못 보는 곳으로 헤어지는 것과 같은 허망함이 참으로 싫었다. 이사하던 날이 지금도 어렵듯이 생각난다. 난 그때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서며 돌아보지 못하고 내뱉던 말이 있었다.

“내 모든 추억, 안녕...”

그랬다. 그곳에서 나는 집이란 그런 소중한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런 소중한 공간을 일구신 부모님의 현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 이후 몇 번의 이사를 더 하게 되었고 아버지 생전에 우리 가족이 가장 작은 공간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사춘기 이후 나의 20대까지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던 추락은 이어졌고 우리 남매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마치 가족에게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하신 것을 미안해하시는 듯이.

그러나 오빠의 결혼 이후 보금자리까지 마련해 놓으셨을 거라곤 생각을 못했다. 신도시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으셨던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작지만 희망의 한 조각을 주시고 가신 것이다. 나머지 조각들을 남겨진 우리 가족들에게 찾을 이유와 힘을 안겨주신 것이다.



혼자되신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과 오빠의 결혼을 치러 내셨고 나에겐 자상한 올케언니와 귀여운 두 조카가 생겼다. 그 집에서 우리는 어머니와 나, 오빠와 올케언니, 큰 조카까지 5식구가 작지만 시작한 공간에서 함께 했다. 그리고 둘째 조카가 태어나기 전 오빠네 가족은 온전한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분가를 하였다.

어머니는 오빠 내외가 분가하기 전까지 하루하루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않으셨다. 그 당시 나는 어머니와 한 방을 쓰며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의 짐으로 힘들어 하시는지 알고 있었고, 그 마음의 짐은 아직까지도 여전하신 것 같아 때때로 그것이 죄책감이 되실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준 올케언니가 참으로 고맙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어찌면 두 여인의 사랑과 인내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주신 희망의 또 다른 조각은 아닐까?

이후 어머니는 집안에 계시는 시간보다 생계를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생애 처음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우미일도 불평 없이 해내셨다. 이 세상의 어머니가 감내하시는 희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없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불순할 만큼 자식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러웠다.

그 이후 어머니께선 작은 음식점을 시작하셨다. 평소 음식솜씨가 뛰어나서 집안 경조사 때에도 많은 종류의 음식을 도움 없이도 만들어 내셨던 터라 친분이 있던 아주머니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도전하시었다. 권리금과 보증금, 그 외 비용 때문에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었다. 물론 매일 가족들도 가게 일을 도왔다. 힘들긴 하였지만 그래도 시작과 함께 꿈도 생기니 어머니께선 힘든 것도 잊으신 듯 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신 것이다. 바쁘시다는 이유로 정기검진을 거르셨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역병원에선 대형병원에서의 진료를 권유하였고, 검사소견은 다름 아닌 암이었다. 그때 난 마음속에 갖고 있던 모든 믿음을 다 버리기 시작했다. 아니 그것들을 내 마음의 칼로 부러뜨려 버린 것이다. 입 밖으론 아니라 해도 마음속으론 소심하게나마 빛을 말하고 있었는데

다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때 난 어머니를 엄마가 아닌 가여운 여인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참으로 이상한 마음이었다. 어머니와 딸은 애증의 관계라던데 병원에서 바라본 어머니는 동지 같은 여인으로 보이니. 한평생 자식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버리지 않으신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건가 싶었다. 이제 와서야 말이다.

어머니는 수술과 방사능 치료, 어려운 항암 치료까지 정말 긍정적으로 너무나 잘 해내셨다. 그러나 아파트 담보대출로 시작한 음식점은 운영이 어려워 적잖은 손해를 입고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자식들이 조금만 더 성공했다라면 어머니의 노후는 걱정 없으실 텐데 어머니는 그런 호사조차 누리시지 못하셨다.

오히려 평생을 모든 걸 주시고도 안쓰러워 하셨던 어머니. 그런 못난 자식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 당신 때문에 속상해할까 오히려 염려하시던 어머니. 암을 극복해내는 과정 중에 이런 생각들로 더욱 괴로웠다.

그 이후 다시 한 번 이사를 하게 되었다. 오빠네 가족과 가까운 거리로 함께 집을 옮기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주택연금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미 일전에 한차례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께선 쉽게 결정하시지 못하셨다.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매달 생활비와 노후 자금은 안정적으로 준비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부담이 되셨을 거다. 그리고 또 한 차례의 관절 수술로 어머니는 남아있던 자신감조차 잃어버리신 듯 했다. 절망감이랄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으셨다. 마지막 남은 소중한 집만큼은 이제 건드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다. 차후에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셨던 것이다. 대신에 생활비의 부족분은 약간의 생계형 담보 대출로 해결하시고자 하셨다.

이후 다시 이사를 고려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 중 더욱 세밀하게 주택연금을 따져보게 되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가며 어머니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측과 상담한 결과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또한 차후에라도 다양한 변수와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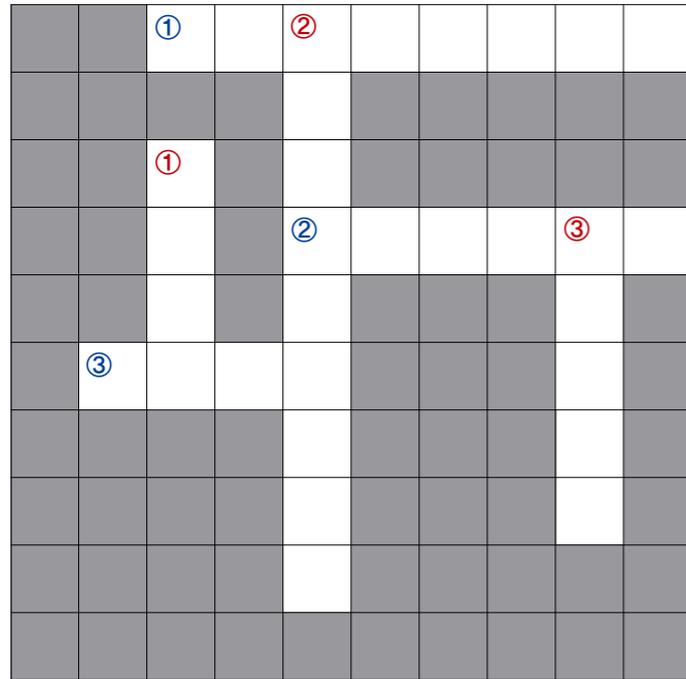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처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힘든 말씀을 꺼내신 것이다. 눈물과 함께. 때로는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 하지 않던가. 그 순간 어머니는 그런 마음이셨을 거다. 우리에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지만 어머니의 눈물은 그것이 진실이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다.

요즘은 다매체 시대이다. 많은 정보를 다양한 루트로 얻게 되는데 우리도 주택연금의 장점이 어머니의 노후에 큰 힘이 되어 줄 거라 믿는다. 그렇게 어머니도 여러 매체의 정보와 몇 차례 상담을 거쳐 올해 초 주택연금 가입자가 되셨다. 가장 좋은 것은 아주 큰돈은 아닐지라도 생활의 여유를 찾아가시는 모습이다. 조금씩이라도 안정감 속에 작은 소망을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뵈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쁘다. 🏡



## 알쏭달쏭 낱말 퀴즈, 함께 풀어보세요

주택연금 겨울호 기사가 도움이 되셨나요? <주택연금> 겨울호에서 소개한 다양한 개념과 정보를 낱말 퀴즈로 풀어보세요. 본문에 나온 기사를 잘 읽어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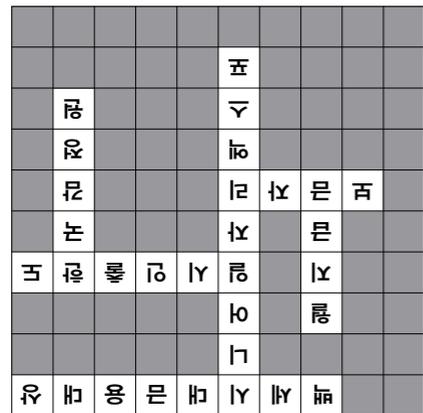


### 【가로열쇠】

- ①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월 11일 '○○○○○○○○○'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본지 9p 참조)
- ②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용도의 ○○○○○가 총 연금한도의 30%(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되었다. (본지 12p 참조)
- ③ 주택금융공사 봉사모임인 ○○○○봉사단이 담긴 김치와 성금은 서울 마천동 마천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센터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계층 400여 가구에 전달되었다. (본지 11p 참조)

### 【세로열쇠】

- ① 7월 31일에는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은 ○○○○을 받을 수 있는 전후후박형 상품이 출시되었다. (본지 12p 참조)
- ② '2012 서울 ○○○○○○○○○'는 서울시가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개 최한 것으로 일자리 정보교류관, 일자리 서비스관, 일자리 채용관 등 테마별 3개 관을 운영, 취업 준비부터 채용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지 9p 참조)
- ③ 아파트의 경우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의 개별 감정평가가격 우선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과 동일하다. (본지 13p 참조)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이젠, 자녀들이 부모님의 행복을  
생각할 때입니다

## 부모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매달 월급처럼 드리는 「주택연금」

### 주택연금 월지급금

(일반주택, 정액형, '12.9월 기준)

주택가격	3억원	5억원	7억원
60세	72만원	120만원	168만원
70세	103만원	173만원	242만원
80세	160만원	268만원	362만원

가입자격 : 부부모두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의 집 한채를 소유하신 분

### 상품특징

- 자기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두 분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연금 지급
-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정산하며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



www.hf.go.kr

지사	대표전화	위 치
영업부	02-2014-8340~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남대문로 5가6-1) YTN타워 3층
서울남부	02-3290-6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8층
서울북부	02-3499-33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9 길21 (창동 12-3) 두승빌딩 8층
서울서부	02-2638-19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신도림동 692) 디큐브시티 18층
부산울산	051-804-397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3(부전동 260-1) 한국외환은행 서면지점 5층
대구경북	053-430-2400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덕산동 110) 삼성금융프라자 23층
인 천	032-441-2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7(구월 1동) 용진빌딩 7층
광주전남	062-370-5700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치평동 1208-2번지) 8층
대전충남	042-223-26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둔산동 949번지) 신한중앙회관 2층
경기남부	031-898-50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1(권선동 1023-3) 서울보증보험빌딩 9층
경기중부	031-478-7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관양동 1599) 신한평촌금융센터 6층
강 원	033-259-36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45(중앙로 1가 80번지) SC제일은행 춘천지점 2층
충 북	043-299-28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4(복대동 858-2) 태산빌딩 5층
전 북	063-241-277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1(인후동 2가 1573-1) 사학연금회관 6층
경 남	055-278-29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중앙동 93-2번지) 교직원공제회관 6층
제 주	064-726-516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407(노형동 1288-5) 노형타워 4층 406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남대문로5가6-1) TEL 1688-8114